

# 화두선·묵조선을 융합해 닦는다

## 대만불교 부흥의 주역 성엄 선사사의 수행법

최근 한국에서는 대만불교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불교, 특히 한국선은 간화선의 위기가 불릴 정도로 선풍이 약해진 반면 선의 전통이 끊기다시피 했던 중국선은 대만을 중심으로 활발히 부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불교신자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대만불교 성장의 밑바탕에는 대만 3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성엄 선사사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성엄 선사사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과 문화활동 전반에 걸친 폭 넓고 다양한 활동으로 미국과 동남아 지역 등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쇠퇴했던 선풍이 경허 선사 이후 만공 스님으로 이어진 법맥으로 유지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송나라 이후 중국과 대만불교는 중국 본토의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며 허운 선사 등을 통해 명맥을 겨우 유지해오던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동종과 임제종의 법맥을 모두 이은 성엄 선사사의 선 수행 지도는 중국 선불교 발전의 디딤돌을 놓았다. 성엄 선사사는 화두선과 함께 중국에서는 실천되다시피 했던 묵조선법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은 성엄 선사사의 수행 방법을 다뤘다. 이 책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선기(禪期, 집중 선 수행 안기) 중 강연한 화두선 관련 내용을 모은 《대의단의 타파》와 묵조선 관련 내용을 모은 《무방법의 방법》을 번역해 합본한 것이다. 이 책은 합본을 통해 선종의 대표적 수행법인 화두선법과 묵조선법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두 수행법은 방법 상 확연한 차이가 있어 한데 섞거나 융합하기 어렵다. 가장 큰 차이는 화두선이 의심의 힘을 기반으로 대의단(大疑團)을 형성해 이를 타파하는 방법인데 반해, 묵조선은 이러한 큰 의심을

요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과 또렷함으로써 사물의 실상에 곧바로 다가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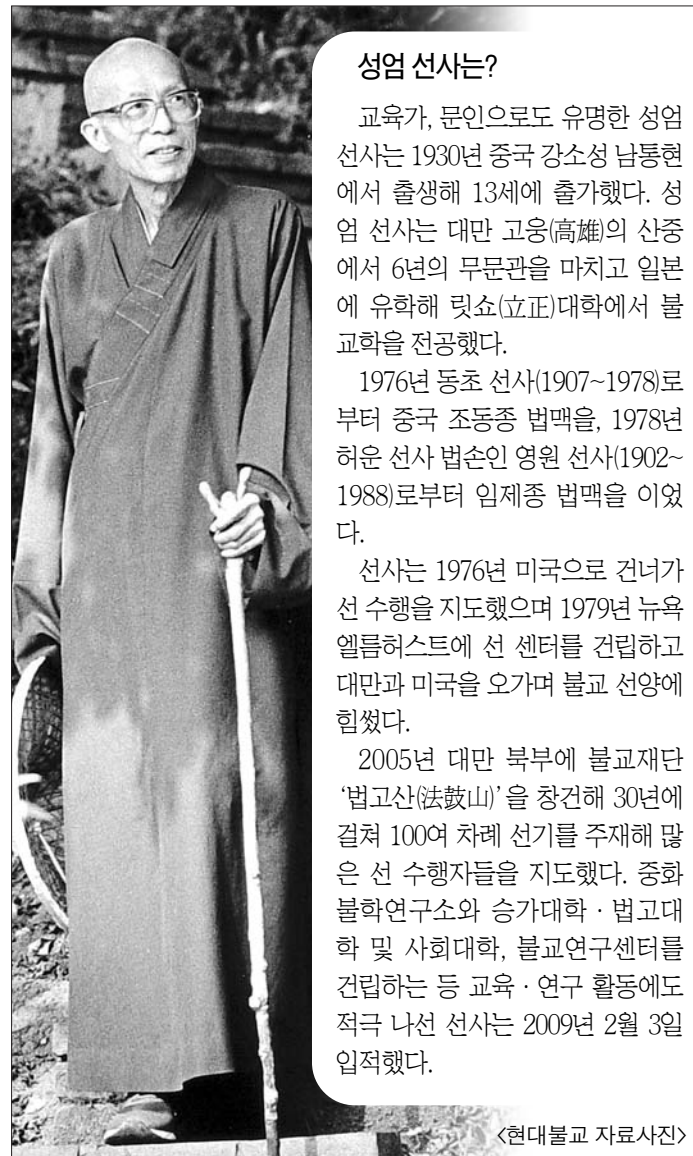
성엄 선사사는 책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체험과 수십 년에 걸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두 선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행법을 편다. 책에서 나온 성엄 선사사의 수행 체계를 보면, 화두선법과 묵조선법에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그것을 각기 적절한 단계로 구분해 수행자들이 자신의 진도를 가능하게 쉽게 했다. 여기에 수식법을 보조적으로 운용하고 참회와 발원을 통한 실천적 결의와 꾸준한 정진을 권장한다.

“선은 선정 그 자체를 해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여전히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의 지혜는 어떤 지성이나 특별한 지식도 아니며 활동 한 가운데서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엄 선사사가 중요히 여기는 화두선이란 묵조선이든 초기 단계에 심신을 이완해 스스로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신 이완을 통해 자아감을 찾고 이를 통해 수행에 몰입하기 위해 선사사는 가장 먼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완해 내려가는 방법을 직접 지도한다. 구체적인 과정과 함께 옛 중국선사들의 법어도 함께 강해해 이해를 돕는다.

대의단의 타파·무방법의 방법 | 대성 스님 옮김 | 탐구사 | 1만 8000원

노덕현 기자



성엄 선사사는?

교육가, 문인으로도 유명한 성엄 선사사는 1930년 중국 강소성 남통현에서 출생해 13세에 출가했다. 성엄 선사사는 대만 고웅(高雄)의 선종에서 6년의 무문관을 마치고 일본에 유학해 릿소(立正)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1976년 동종 선사(1907~1978)로부터 중국 조동종 법맥을, 1978년 허운 선사 법승인 영원 선사(1902~1988)로부터 임제종 법맥을 이었다.

선사는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선 수행을 지도했으며 1979년 뉴욕 엘머스트에 선 센터를 건립하고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불교 선양에 힘썼다.

2005년 대만 북부에 불교재단 ‘법고산(法鼓山)’을 창건해 3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선기를 주재해 많은 선 수행자들을 지도했다. 중화 불학연구원소와 승가대학·법고대학 및 사회대학, 불교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교육·연구 활동에도 적극 나선 선사는 2009년 2월 3일 입적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 문화 소식통



밀란 교수의 가네시 작품.

가족아카데미아 네팔캠프(이사장 이근후)는 8월 11~17일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서 네팔 트리뷰탄 대학 밀란 샤카(Milan Shakyu) 교수 초청, 가네시(Ganesh Series) 개인전을 개최한다.

코끼리 머리를 한 힌두교의 신인 가네시(Ganesh)는 시바와 파르바티의 아들로 인도와 네팔에서는 각종 장애를 제거해 준다고 믿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

샤카족 가문에서 태어난 독실한 불교 신자인 밀란 교수는 가네시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자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인도, 일본 등에서 가네시 관련 국제전시회와 강연을 한 바 있다.

밀란 교수는 이번 방한 중에 종로 고려사이버대학에서 16일 ‘힌두문화에서의 네팔 회화’를 주제로 특강하며 만다라 제작 전문가인 밀란 부인은 15일 경기도 양주 광명보육원에서 ‘샌드 만다라’ 제작을 시연할 예정이다. (02)732-8144 노덕현 기자

# 사람의 아들 ‘붓다’ 그 성장 기록

## 디팩 초프라가 바라본 붓다의 삶

〈붓다〉는 붓다의 생애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데 초점을 찍고 돌아본 소설이다. 현대의학과 고대 인도의 전통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를 접목한 ‘심신의학’의 창안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붓다를 격정적이면서도 섬세한 내면을 지닌 한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저자는 출가 전 사가 왕국의 왕자 ‘싯다르타’로서의 생활에서 시작해 ‘고타마’란 이름으로 살았던 수행자 시절,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기까지를 3부로 나뉘고 그렸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타이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기도 한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져 붓다의 생애가 한편의 성장기로 펼쳐진다.

저자가 인간으로 그린 붓다의 삶은 어머니와 첫사랑을 잃은 슬픔, 악마와의 대결, 생로병사에 대한 번뇌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끝없는 번민에 빠져 29세에 아내와 자식, 왕좌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떠난 왕자 싯다르타는 여러 스승을 만나지만 구도에 대한 갈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고행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부적인 영향으로 마음과 몸을 이기려 한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저자는 책에서 ‘붓다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고 그 표

면에는 신이 붙어다닌다. 그러나 붓다는 그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절대 기적이나 신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붓다는 평화롭고 고요하게 수행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성(性), 살인과 전쟁, 상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반문한 결과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유명하지만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붓다를 시간의 안개 속에서 끌어내 그에게 피와 살을 주며 그 신비함을 여전히 보존하고 싶었다.”

책 속 저자의 말은 맹목적인 신앙의 속박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한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길 권유한다.

붓다 | 디팩 초프라 지음 | 진우기 옮김 | 푸르메 | 1만1000원

노덕현 기자



# 히말리아트레킹이렇게!

## 법상 스님 “단순한 여행 아닌 운명”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은 국내 최초로 스님이 쓴 히말리아 트레킹 입문서다.

이 책에서 저자 법상 스님은 히말리아의 대자연에 체험하면서 스님으로서 느낀 감동을 전한다. 마치 일기를 쓰듯 ‘트레킹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 ‘홀로 걷는 트레킹을 통해 명상하는 법’, ‘히말리아에서 만난 대자연의 장관’ 등을 생생감 있는 필치로 그려 놓았다.

홈페이지 ‘목탁소리’ 등 인터넷 공간에서 수행 지도 법사로 활동하며 명상, 자연, 여행과 관련된 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저자는 책에서 “히말라야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운명 같은 것이었고, 내면을 돌아보는 구도과정이자 만행이었다”고 토로한다.

저자가 직접 담아 온 히말리아의 자연, 사람, 꽃, 동물 등 150여 컷의 사진도 글과 함께 그 생생함을 더한다. 또 부록 ‘법상 스님께 묻는 트레킹 Q&A’을 통해 히말리아 트레킹을 위한 준비사항도 소개한 점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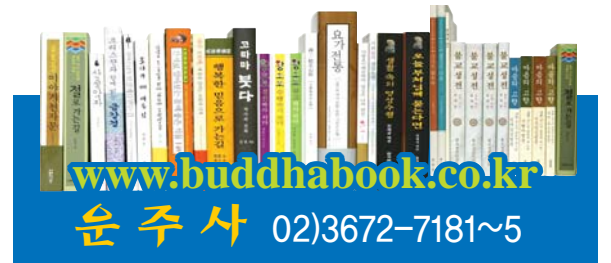
히말리아,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 법상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5800원

노덕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2	기도	법륜	정토
3	행복한 간화선	일선	클리어마인드
4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5	마중물의 힘	허달	여시아문
6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7	소셜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야	민족사
9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원철	들
10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성엄	탐구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활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용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지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단월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요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주)현대에너지 2010년 최신행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농자경영제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1종 ~ 20명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직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회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전강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범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 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법음입니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1인당 6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발우 대야,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